

녹색산업 자격제도 개편과 미래 유망 분야 발굴 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발행처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전화	02-3156-7863, 7864
		팩스	02-3156-7869
발주기관 연구원	환경 ISC 김상남 사무총장, 김동완 팀장, 신제문 과장, 조인선 연구위원, 정응우 연구원		
수행기관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승환(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참여연구자: 조정윤(국제고용개발원), 정동열(한국공학대학교)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
Environment Industrial Skills Council

대표기관



연구수행기관



I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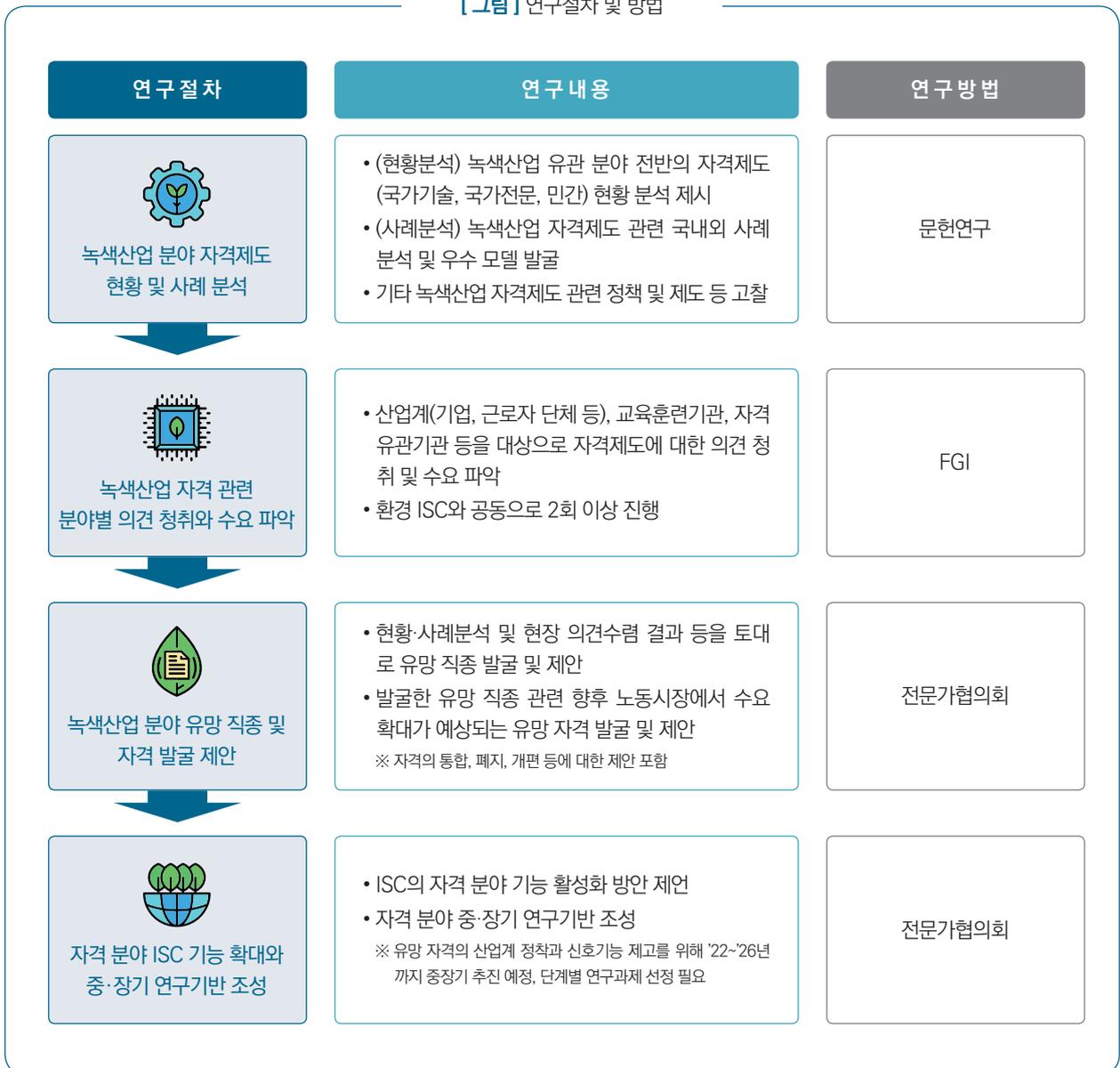
- ▶ 자격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자격기본법」 제정(1997년) 등을 통해 자격이 평생학습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신기술 출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AI 등 신기술 발전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에 대한 체계적 인정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는 시점임.
- ▶ 환경 분야의 경우 녹색 기반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탄소중립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의 역량 고도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자격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노동시장에서 직무를 바탕으로 한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녹색산업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실현을 위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 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환경 분야의 경우 다양한 개별법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종목의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거나 응시자가 매우 적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자격제도가 산업현장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을 발굴하고, 자격제도 관련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음.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녹색산업 분야 자격제도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
- 둘째, 녹색산업 자격 관련 분야별 의견 청취와 수요를 파악함.
- 셋째,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을 발굴 제안함.
- 넷째, 자격 분야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을 조성함.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문헌연구, ②FGI, ③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그림] 연구절차 및 방법



II 자격제도 개편 관련 주요 현황 및 동향

가. 자격의 유형 및 현황

- ▶ 자격은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개별법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일학습병행 자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국가자격 중 '개별법 국가자격'은 개별 정부부처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22년 3월 기준 196개 자격, 567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의미하며, '22년 3월 기준 총 546개 종목이 운영 중임.
 - 등록민간자격은 경찰청 등 40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2년 5월 기준 IoT가전/스마트홈전문가, 드론정비사, 곤충관리사,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등 46,375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공인민간자격은 교육부 등 17개 부처, 50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2년 5월 기준 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자동차진단평가사, TEPS 등 95개 명칭의 254개 등급(분야)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우리나라 자격제도 현황

구분		종목 수	관련 법률	자격 예시
국가 자격	개별법 국가자격 ¹⁾	196 ('22.3월 기준)	개별 법(94개) (교육부 등 29개 부처)	변호사(「변호사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청소년상담사(「청소년기본법」) 등
	국가 기술자격	546 ('22년 5월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고용노동부 등 20개 부처)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일학습병행 자격 ²⁾	43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요양보호_L2, 소물리에_L3, 바리스타_L3, 의료코디네이터_L3, 카지노기획개발_L4, 헬스케어운동지도_L5 등
민간 자격	등록 민간자격	46,375	「자격기본법」 (주무부장관)	IoT가전/스마트홈전문가, 드론정비사, 곤충관리사,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등
	공인 민간자격 ³⁾	95	「자격기본법」 (교육부 등 17개 부처)	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자동차진단평가사, TEPS 등
	사(업)내자격 ⁴⁾	295	「고용보험법」	INNOVATOR(삼성SDS), 환경시설관리사(부산환경공단), 뷰티컨설턴트(화진화장품), 커피매스터(스타벅스코리아) 등

주: 1) 개별법(94개)에 따른 국가자격의 명칭은 대부분 OO사(士) 또는 OO사(師), OO자, OO면허, OO자격 등 196개 이며, 종목 수로는 567종목('22.3. 기준)

2) 일학습병행 자격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제정으로 318직종 415종목이 마련되었으며, '22년 1월 336직종 434종목으로 개편. '18년부터 '21년까지 L2(기능사 해당) 5,843명, L3 8,180명, L4 854명(이상 산업기사 해당), L5(기사 해당) 805명, L6 95명 등 총 15,777명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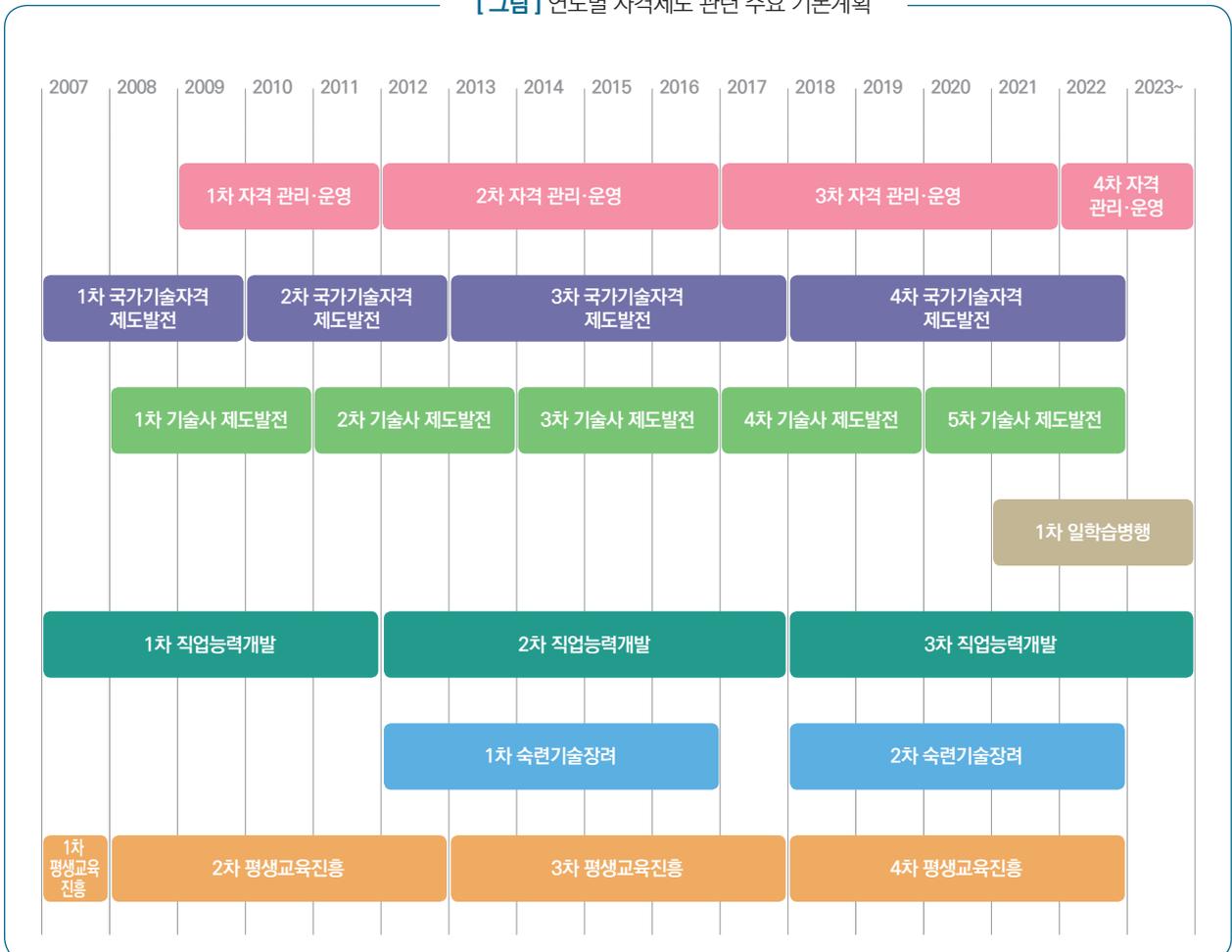
3) 등록민간자격은 '22년 3월 기준으로 공인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에 포함

4) 사(업)내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매년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평가기획부)에서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인증하며, 민간자격 등록 의무가 없음.

나. 자격제도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동향

- ▶ 자격정책 추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본계획으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이 있음.
- 자격제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본계획인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능력 향상, 자격 활용 제고, 자격취득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본계획이 수립·추진 중임.
- '22년에는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현재 차수의 기본계획이 종료되면서 '23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특히 개인이 보유한 직무역량을 체계화하여 측정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역량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도 주요한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격의 현장성, 통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자격의 산업현장성 강화, 역량 기반의 자격제도 운영, 자격의 통용성 확대, 자격정책 거버넌스 및 인프라 정비 등이 있음.

[그림] 연도별 자격제도 관련 주요 기본계획



III 환경 분야 자격제도 운영 현황

가. 환경 분야 국가자격 운영 현황(총괄)

- ▶ 환경 분야 국가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 24개 종목과 개별법 국가자격 6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등급 및 세부 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기술사 6개, 기사 10개, 산업기사 7개, 기능사 1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3개 종목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정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는 자격 수요 저조로 인해 각각 2022년 말, 2023년 말 폐지 예정임.
- 개별법 국가자격으로는 환경측정분석사(대기), 환경측정분석사(수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교육사, 환경영향평가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의 종목이 운영 중임.

〈표〉 우리나라 자격제도 현황

국가기술 자격(24)			
 기술사 (6)	 기사 (10)	 산업기사 (7)	 기능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온실가스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환경위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온실가스관리**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농림토양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개별법 국가자격(6)	
환경측정분석사(대기)	환경교육사(구.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측정분석사(수질)	환경영향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검정형-과정평가형 병행 시행 종목

** 검정 시행 중단 예정 종목

나. 환경 분야 국가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

- ▶ 환경 분야 국가자격 취득자는 '21년 기준 연간 13,000여명 수준이며, 이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연간 12,00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국가기술자격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자격 취득자가 8,373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기능사' 등급 자격 취득자가 3,021명, '산업기사' 등급 자격 취득자가 1,004명, '기술사' 등급 자격 취득자가 49명 등의 순임.
 - 가장 상위 등급인 기술사 등급은 연간 50명 내외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종목의 취득자가 가장 많음.
 - 기사 등급은 연간 약 7~8천 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으며, 그 중 대기환경, 수질환경 종목 취득자가 약 2천 명 정도로 가장 많음.
 - 산업기사 등급은 연간 약 1천 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으며, 기사 자격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종목 취득자가 약 300명 내외로 가장 많음.
 - 기능사는 연간 약 3천여 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음.

다.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령

- ▶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는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와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등에 근거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의무고용) 취득 자격 또는 자격 취득자의 고용을 제도화하는 경우
 - (직무권한 부여) 고용의무는 없으나, 자격 취득자만이 해당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인사 우대) 채용 시험과목의 면제, 경력(경쟁)채용 시 직무 관련 자격 소지자 임용, 채용·전직·승진 시 가산점 부여, 전보 시 우대 등
- ▶ 환경분야의 다양한 사업군에서 자격 취득자 의무고용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군별로 '자격 취득자'의 대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나, '학력 또는 경력 보유자'로 대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임.
 - 즉, 환경분야 자격의 경우 '낮은 수준의 면허성'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IV,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가. FGI 주요 결과

- ▶ (개요) 환경분야 자격제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수요 분석을 위해 전문가 FGI 실시
 - 사전에 인터뷰 참석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당일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총 2회 실시('22.11.4, '22.11.9)하였으며, 각각 4인의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
 - 크게 ①사전질문, ②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③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④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

▶ 환경 분야 자격의 활용 실태 및 주요 이슈

- 전반적으로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격의 활용성이 높은 편
- 다만, 폐기물분야의 경우는 최근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으로 이슈가 전환되어 기존 '폐기물처리' 자격은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 즉,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폐기물 분야 NCS가 현장 직무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관계법령 재·개정 내용이 출제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산업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어가 출제기준에 혼재되어 있다는 의견
-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에 대해 대체로 환경분야 관련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 환경분야 관련법에서는 관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위나 경력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위나 경력 등으로 대체 불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환경분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 환경분야의 경우 젊은이들의 특성상 기피하는 업무가 많고, 처우 등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제도의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일부 기업에서는 자격 취득자들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

▶ 자격종목 개편, 통합 및 분할 등 요구

- 일부 자격종목의 개편, 통합 등은 검토해볼 수 있으나, 환경분야별로 소관법이 다양하고 특화된 기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대부분
-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등의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하나, 해당 분야 내용전문가의 의견은 요구되는 역량 및 업역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반면, 기능사 등급의 경우 현재 '환경기능사' 종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고려할 때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분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
- 이외에 온실가스 분야 자격은 대기 분야 자격과 내용상 중복이므로, 경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일부 존재
- 특히 폐기물처리 분야의 경우 관련 산업 패러다임, 정책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격종목의 전반적 개편(자격종목명, 자격검정내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자격종목 출제과목 업데이트 등 개선 요구

- 전반적으로 현행 환경분야 자격종목의 출제과목 등이 기술 및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 환경분야 자격 분야별로 출제과목 혹은 출제기준 업데이트에 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 환경분야 공통적으로 정보화(3D오염지도 등) 관련 출제과목 혹은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며, 토양 분야의 경우는 정화 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이외에 폐기물 분야 등 출제내용 업데이트 필요 요구 존재

▶ 자격종목 신설 요구

- 환경분야 자격종목 신설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격종목 신설에 관한 의견이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수요, 최신 정책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
- 탄소중립,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으로 인해 컨설팅업이 대두되면서 환경분야 전반에 관해 검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칭)통합환경관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외에도 생태계서비스 관련 자격, 녹색환경시설관리, 환경보건관리, 소음진동모델링 등에 관한 수요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

나.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 ▶ (개요) 녹색산업 분야의 자격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직종, 수요 자격 발굴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대상 의견 청취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환경 ISC 대내·외 전문가와 공유하고 시사점, 발전방안 등 관련 의견 반영
 - 총 2회 실시('22.11.25, '22.12.09)하였으며, 각각 5인, 4인의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
 - 크게 ①연구과제 개요, ②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관련 주요 현황 및 동향, ③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현황, ④FGI 주요 결과, ⑤향후 추진계획 및 논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 ▶ 환경분야 자격 실태 및 주요 이슈
 -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수요와 교육·훈련을 통한 인원의 배출에 차이가 존재함. 대졸자 수준의 인원이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 인원들이 저임금, 고노동의 업무를 배정받게 되면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
 - 법정 의무배치기준에 환경분야 자격이 기타 자격 또는 학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관련 자격 취득자들의 의무고용사항이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
 - 상하수도 분야가 환경분야의 직무 또는 자격제도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환경분야의 업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 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검정형과 달리 과정평가형은 수요·공급에 일정 수준 개입이 가능하기에 과정평가형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 자격종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자격제도와 관련해 체계를 먼저 확립하고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 현행 환경분야 자격 종목 간 공통능력이 존재하며 법정 의무고용사항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응시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종목을 폐지하기보다는 종목 간 공통능력을 중심으로 자격을 통합하고 자격 내 전문과목을 두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일부 존재함. 이때, SQF(또는 직무맵)와 국가기술자격의 매핑을 통해 유사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자격의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
 - 환경분야 자격종목 신설 필요 종목으로는 ①환경행정 관련 종목, ②상하수도 자산 관리 관련 종목, ③AI,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관련 융복합자격, ④글로벌 트렌드인 안전과 관련한 '환경안전' 종목 등의 제안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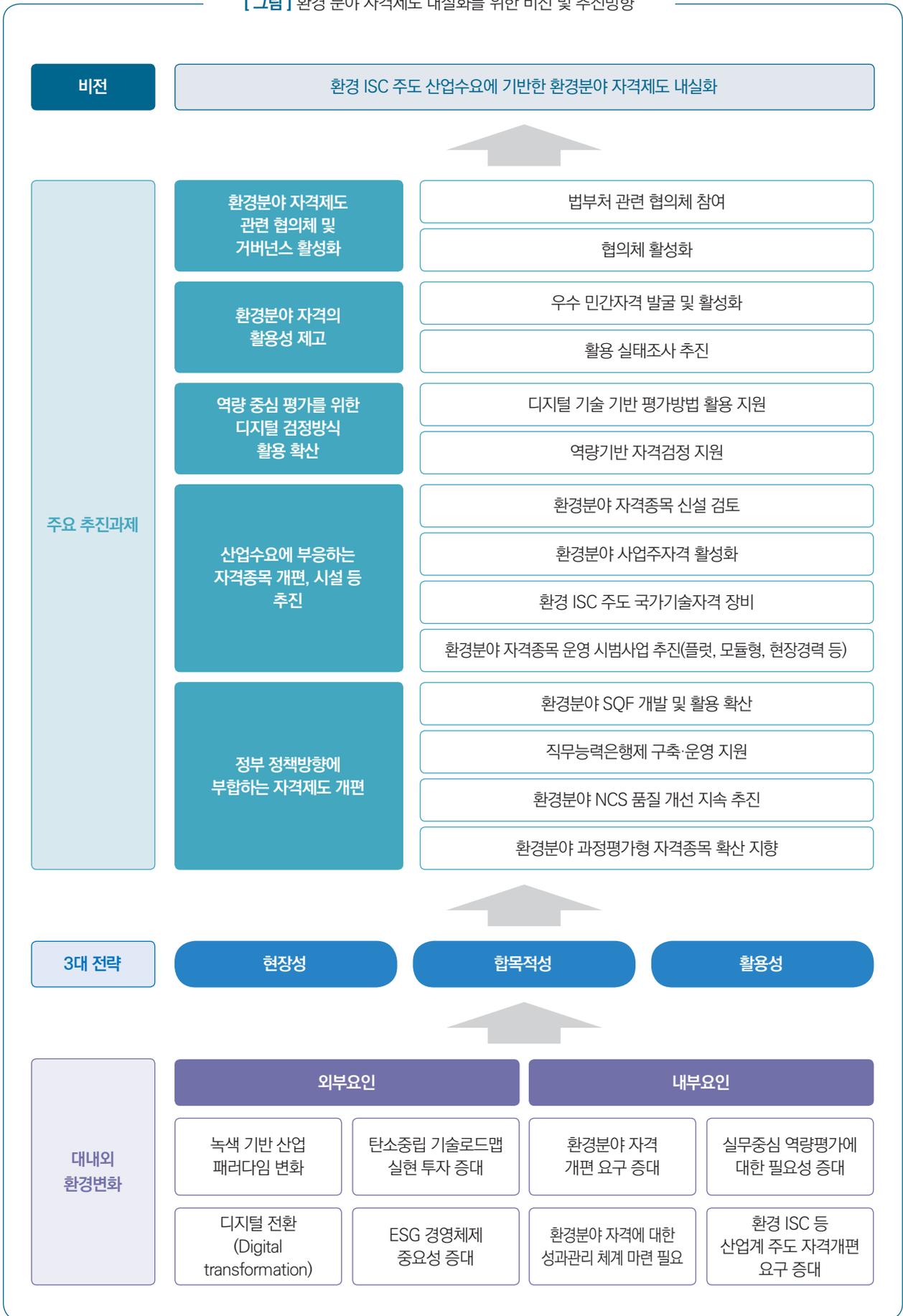
V 환경 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가. 비전 및 추진 방향

- ▶ “환경ISC 주도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환경분야 자격제도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①현장성, ②합목적성, ③활용성 등 3대 전략 설정
 - (현장성) 환경산업 특성 및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제도 지향
 - (합목적성) 최신 트렌드 및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자격제도 지향
 - (활용성) 환경분야 근거 법령, 노동시장, 교육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활용성 극대화

[그림] 환경 분야 자격제도 내실화를 위한 비전 및 추진방향



나. 주요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개편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확산 지향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학습 방지 등을 위해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확산을 지향할 필요
	환경분야 NCS 품질개선 지속 추진	환경 ISC 주도로 환경분야 표준직무 발굴 및 NCS 개발·개선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운영 지원	환경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직무능력은행제에 저축된 학습이력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이를 통해 환경분야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환경분야 SQF 개발 및 활용 확산	환경분야 직무능력 중심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산업별 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확산 추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종목 개편, 신설 등 추진	환경분야 자격종목 운영 시범사업 추진	환경분야 신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러스자격, 모듈형자격, 현장경력 인정형 자격 등 시범사업 추진
	환경 ISC 주도 국가기술자격 정비	환경 ISC 주도로 국가기술자격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자격종목 및 출제기준 정비를 추진하여 자격의 현장성 강화
	환경분야 사업주자격 활성화	환경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유도 차원에서 사업주자격 활성화 검토
	환경분야 자격종목 신설 검토	전반적으로 자격종목 신설보다는 자격제도와 관련된 제반 여건 및 체계를 공고히하여 자격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종목*에 대해서는 신설 검토 ※ 신설 필요성 제기 종목: (가칭)통합환경관리, 생태계서비스, 녹색환경시설관리, 환경보건관리, 환경행정 관련, 상하수도 자산 관리, 환경안전 등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디지털 검정방식 활용 확산	역량기반 자격검정 지원	정부부처, 인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역량기반 자격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예: 역량중심 검정문항 출제 지원, CBT·IBT로의 전환 지원 등)을 환경ISC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디지털 기술 기반 평가방법 활용 지원	기존 PBT 방식이 CBT 혹은 IBT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개발·보급 추진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 제고	활용 실태조사 추진	환경분야 자격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체감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격제도 개편에 반영
	우수 민간자격 발굴 및 활성화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자격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의 비학위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
환경분야 자격제도 관련 협의체 및 거버넌스 활성화	협의체 활성화	환경ISC 주도의 협의체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필요



사람을 위한 환경, 환경을 위한 산업



그린자리



ISC 미니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